

#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최 낙 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1. 서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립목적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있다. 물론 그 방법은 조정 및 중재 업무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김창룡, 2004; 장호순, 2003; 김종서, 1994)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이 다분히 많았다. 언론중재위가 언론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하고, 예방효과 측면에서 언론보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잘못된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탐색은 언론중재위의 존립목적을 강화하고, 필요악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기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언론보도의 피해를 가져온 뉴스사례의 뉴스생산 과정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한 연구들(남재일, 2008; 장호순, 2008; 양재규, 2007; 이연수, 2004; 김창룡, 2004; 장호순, 2003; 김진원, 2001; 서정우, 2000; 양삼승, 2000)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정 및 중재 대상 기사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정결진, 2008; 최낙진, 2008)들도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독자적인 자기 점검의 의미에서 제주지역 뉴스보도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은 지역 나름의 특수성과 관행이 매우 강한 곳인 만큼, 그 해결

책도 제주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지역에서의 실험적, 시험적 연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기사를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의 보편적 기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 연구가 전국에서 이루어진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는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거나, 중재위의 결정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사의 시시비비나 중재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부분으로 극히 제한하였다.

## 2.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1. 중심주제 유형은 어떠한가?

1-2. 보도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보도행태의 차이는 ‘리드(lead) 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여부’, ‘보도태도의 차이’, ‘의견 제시 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1-3. 정보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인용은 정보원 출처 활용 수, 실·익명 처리,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제목인용과